

# 또 하나의 가을잔치... 무등기 사회인 야구 막 오른다

###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대진표

#### 무등 토너먼트 대진표

1. 무등 1회차: 무등 1회차 1팀 vs 무등 1회차 2팀

2. 무등 2회차: 무등 2회차 1팀 vs 무등 2회차 2팀

3. 무등 3회차: 무등 3회차 1팀 vs 무등 3회차 2팀

4. 무등 4회차: 무등 4회차 1팀 vs 무등 4회차 2팀

5. 무등 5회차: 무등 5회차 1팀 vs 무등 5회차 2팀

6. 무등 6회차: 무등 6회차 1팀 vs 무등 6회차 2팀

7. 무등 7회차: 무등 7회차 1팀 vs 무등 7회차 2팀

8. 무등 8회차: 무등 8회차 1팀 vs 무등 8회차 2팀

#### 광일 토너먼트 대진표

1. 광일 1회차: 광일 1회차 1팀 vs 광일 1회차 2팀

2. 광일 2회차: 광일 2회차 1팀 vs 광일 2회차 2팀

3. 광일 3회차: 광일 3회차 1팀 vs 광일 3회차 2팀

4. 광일 4회차: 광일 4회차 1팀 vs 광일 4회차 2팀

5. 광일 5회차: 광일 5회차 1팀 vs 광일 5회차 2팀

6. 광일 6회차: 광일 6회차 1팀 vs 광일 6회차 2팀

7. 광일 7회차: 광일 7회차 1팀 vs 광일 7회차 2팀

8. 광일 8회차: 광일 8회차 1팀 vs 광일 8회차 2팀



광주일보와 전남문화회가 주최하는 제14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12일 함평야구장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열린 무등토너먼트 에어패스 파죽지세와 레이니즘과의 경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내일 함평야구장에서 개막  
무등리그 8팀·광일리그 8팀  
27일 결승까지 뜨거운 열전

12일 광일리그 8강전이 진행되고, 13일에는 무등리그 8강 승부가 열린다. 20일에는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준결승전을 통해 우승을 다툰 결승진출팀이 가려진다. 무등기 14번째 우승팀을 가리는 대망의 결승전은 27일 진행된다. 이번 대회 개막전은 빛고을페리토스와 파트너스가 장식한다. 두 팀은 12일 오전 9시 대회 첫 승리를 놓고 격돌한다. 이어 킹가이즈-슬러거, 송원블루제이스-그린라인, 무안어니언스-영광사크스의 대결이 펼쳐진다. 무등리그의 8강전이 열리는 13일에는 오전 9시 석산동문회와 파죽지세가 첫 대결을 갖는다. 두 팀의 경기에 이어 함평드레곤즈-뉴욕야시장, 한사랑병원-샌프랜즈, 상무스타치고-파이터스가

4강행을 다투게 된다. 무등리그와 광일리그 정상에 오르는 우승팀에는 트로피와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각 리그 준우승팀에는 트로피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공동 3위에도 2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

다. 개인 시상도 진행된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선수와 최우수심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한편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평 체육회가 무등기 대회를 주관하며,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는 대회 후원에 나서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연습경기도 실전처럼...KS 준비 OK

연습경기 관중석 무료 개방  
14일부터 합숙훈련 진행

KIA 타이거즈가 'V12'를 위한 통큰 행보에 나섰다. KIA는 1위로 2024시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7년 만의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있다. 짧은 휴가 뒤 지난 4일 챔피언스필드에 소집된 선수단은 체력·기술 훈련을 하면서 결전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실전 준비를 위한 세 차례 연습경기도 준비됐다. KIA는 9일 상무야구단을 상대로 첫 연습경기를 진행했고, 14일에는 조명탑을 켜고 롯데 자이언츠와 오후 6시부터 야간 연습경기도 소화한다. 또 원래 일정보다 이를 미뤄 18일 자체 연습경기를 갖고 한국시리즈를 위한 마지막 리허설을 할 계획이다. 올 시즌 우승이라는 결승선을 위해 '원팀'으로

땀을 뿜었던 선수들은 '한국시리즈 무패' 신화를 잇기 위해 의기투합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구단도 선수들의 우승 질주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KIA는 연습경기날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뜨거운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들을 위한 팬서비스이자, 긴장감 가득한 무대를 앞둔 선수들이 실전 같은 분위기에서 집중력 있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상무와의 연습경기가 열린 9일에는 1만 5415명이 입장하면서 시즌과 같은 뜨거운 관중석이 연출되기도 했다. 예상보다 많은 팬이 예매에 나서면서 KIA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이날 5층 관중석도 개방했다. 그만큼 경기 진행을 위한 관리 인원도 늘어나는 등 비용은 급증했지만, KIA는 팬들과 선수들을 위해 관중석을 활짝 열었다. 물론 연습경기 상대팀의 경비도 KIA가 부담한

다. 이범호 감독과 심재학 단장은 9일 상무선수단에 감사의 의미로 커피와 빵을 돌리기도 했다. 14일부터는 선수단이 합숙을 하면서 한국시리즈를 위한 본격 체제로 전환한다. KIA는 지난 2017년에도 훈련과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숙 훈련을 했었다. KIA는 14일부터 한국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합숙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KIA는 시즌 중에도 원정경기 '1인 1실' 체제를 운영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경기장 근처의 숙소를 통으로 빌렸다. 한국시리즈를 위한 KIA만의 '분부'를 마련해 선수단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선발전 준비상의 위기를 넘고 정규시즌 우승을 이룬 KIA가 통큰 지원 속에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준플레이오프 '벼랑 끝 승부'

토종 선발 KT 엄상백 vs LG 임찬규 '리턴매치'

임찬규(LG 트윈스)와 엄상백(KT 위즈)이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운영의 5차전에서 선발로 다섯 만에 다시 맞붙는다. LG와 kt는 휴식일인 10일 두 투수를 1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벌어지는 준PO 5차전 선발로 예고했다. 지난 6일 준PO 2차전에서 임찬규는 엄상백에게 판정승을 거뒀다. 엄상백이 4이닝 동안 안타 6개와 볼넷 2개를 내주고 4실점 해 패전 투수가 된 데 반해 임찬규는 5.1이닝 7피안타 2실점(1자책점)의 안정적인 내용으로 포스트시즌 첫 선발승을 수확하고 데일리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임찬규는 올 시즌 KT를 상대로 4차례 등판해 3승(무패) 평균자책점 2.70으로 강했던 면모를 가을 야구에서도 똑같이 뽐냈다. 그러나 엄상백은 정규 시즌에서 LG에 1승 1패 평균자책점 8.44로 약했던 데이터를 극복하지 못했다. 준PO 4경기를 치르면서 양 팀 타선도 살아난 만큼 두 투수가 얼마나 길게 던지느냐가 승패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러설 곳 없는 5차전에서 두 팀이 불펜 총력전을 펼 예정이라 엄경엽 LG, 이강철 KT감독이 어떻게 계투를 구성할지도 관심이다. 불펜 싸움에서 KT에 밀리는 LG는 임찬규에 이어 3차전 승리 투수 손주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와 더불어 선발 투수에서 포스트시즌 불펜 투수로 보직을 바꾼 손주영은 지난 8일 3차전에서 구원 등판해 5.1이닝 2피안타 7탈삼



엄상백

임찬규

진 무실점의 눈부신 역투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손주영이 중간에서 잘 버텨준다면 김진성, 유영찬, 에르난데스가 뒤를 받칠 예정이다. KT는 김민, 김민수, 손동현, 고영표, 우규민 등 오른손 구원 투수를 총동원해 LG의 예봉을 꺾을 계획이다. LG는 4번 타자 문보경이 15타수 무안타의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상·하위 타선에서 고루 터져 공격 야구의 틀을 잘 유지하는 반면 주포 멜로르스 주니어가 아직 타점을 하나도 수확하지 못한 kt는 공격의 맥이 자주 끊겨 득점에 애로를 겪는다. 두 팀의 주포가 언제쯤 기지개를 켜느냐도 승패를 가를 변수다. /연합뉴스

## 동신대 태권도학과, 전국대회서 활약

김희천·박지연 금메달

동신대 태권도학과(학과장 김철민 교수)가 제 47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 2개, 동 1개를 수확했다. <사진> 최근 경북 영주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동신대 김희천(3년), 박지연(1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성운(1년)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2022년 출범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은 동신대 태권도 학과는 매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명품학과로 비상하고 있다. 한편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품새, 격파, 태권체조 등에서 기량을 겨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즐거움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